

지금, 더 많은 기부금이 필요한 분야는?

한국 비영리 리더 30인 메시지

2026년, 더 많은 기부금이 필요한 곳은 어디일까. 더버터는 한국의 비영리 리더 30인에게 가장 시급하다고 느끼는 사회 문제와 그 이유를 물었다. 현장에서 매일 마주하는 위기의 얼굴들, 지금 개입하지 않으면 더 깊어질 격차와 고통에 대한 이야기가 응답에 담겼다.

정리=김시원·문일요·최지은·박선하 더버터 기자

1 김병윤 구세군 사령관

돌봄 사각지대는 디지털 환경 변화, 가족 구조 다변화, 양극화 심화로 오히려 더 복잡해졌다. 한부모·조손가정과 다문화·위기 청소년은 기존 제도에 포착되지 않거나 단편 지원에 그치기 쉽다. 아동기부터 자립까지 있는 장기 지원이 미래 투자다.

2 김새려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대표

기후재난은 난민을 다시 집 밖으로 떠밀며 삶을 더 불안정하게 만든다. 동시에 난민은 기술과 역량으로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주체다. 정착·기술경로를 넓히고 줄어든 인도적 지원을 회복해야 한다.

3 김용덕 함께만드는세상 이사장

난개발은 기후위기를 가속하고, 재생에너지에는 지역경제를 살릴 기회가 된다. 지역에서 생계를 이어가는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는 제도권·정책금융의 사각지대에 있다. 사회적금융이 자립과 사회혁신조직 성장을 돋는 연결고리다.

4 김인권 바보의나눔 상임이사

다문화가정과 장애인, 소수자는 의료·주거·돌봄 같은 기본권에서 조차 제도 사각지대에 놓이기 쉽다. 특히 이주민은 이웃이 아니라 이방인으로 취급되면서 병원 접근 자체를 포기하기도 한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통받는 이웃을 잊지 않는 기부가 필요하다.

5 김진아 아름다운재단 사무총장

산불·홍수 같은 기후재난이 반복되는 '복합재난 시대'에는 긴급구호만으로는 부족하다. 단순한 긴급구호를 넘어 사회 전반의 회복탄력성 강화에 대한 투자가 절실하다. 그 힘은 단단한 공동체에서 나온다. 지역을 지키는 사람들이 연결돼 자생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마을공동체 회복과 지역재생에 자원을 집중해야 한다.

6 방대욱 다음세대재단 대표

대상이나 분야를 지정하는 기부보다 사람·조직·인프라를 키우는 기반조성기부가 더 활성화돼야 한다. 특정한 대상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생태계를 건강하게 만드는 기부 사례가 필요하다.

7 신미숙 훌트아동복지회 회장

저출산과 인구감소 속에서도 아동·청소년의 위기 양상은 다양해지고 취약성은 커지고 있다. 아동의 성장 기회가 보장되지 않으면 사회 전체의 지속가능성과 협평성이 훼둘릴 수 있다. 공공·민간의 적극적인 기부와 이를 통한 새로운 사회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

8 신혜영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

노인돌봄·세대통합은 초고령사회에서



가장 시급한 투자 영역이다. 1인 노인가구 증가로 고독사 위험, 치매·돌봄·디지털 소외가 함께 커지지만, 제도만으로는 충족하기 어렵다. 지역 기반 안전망이 필요하며 노인을 돌봄의 대상이 아니라 세대 연결의 중심으로 볼 때 공동체 회복력이 향상된다.

9 윤세리 사단법인 온울 이사장

국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범죄피해아동과 수용자 자녀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아이들을 사회문제의 피해자로 보고 정서적 돌봄을 포함한 '차유적 사법' 관점의 지원이 필요하다. 이처럼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유산기부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10 윤종선 부스러기사랑나눔회 대표

아동·청소년은 우리가 만든 사회에서 자라 결국 내가 노년에 살아갈 세상을 만든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꿈을 펼칠수록 미래는 더 단단해진다. 다문화·소수자와 함께 살아가기 위한 인식개선과 장기적 통합 활동에는 꾸준한 기부가 필요하다.

11 이광희 한국해비티트 사무총장

지역소멸은 단순 감소가 아니라 공동체의 존재를 위협하며 경제·사회 붕괴의 악순환을 부른다. 마을공동체 회복과 노후주택 개선, 빈집활용 도시재생 같은 기반 사업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자립을 돋는 노력이 필요하다. 주거 지원은 '존엄성 회복'의 핵심이다.

12 이상주 플랜인터내셔널코리아 대표

기후재난은 취약국일수록 피해가 더 크다. 아동권 관점에서 기후적응, 재난 대비 교육, 기후위기로 인한 권리 침해 대응을 전문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단발 지원을 넘어

지역사회가 다시 설 수 있도록 장기 회복을 함께 설계하는 투자가 필요하다.

13 이용기 굿피플 회장

사각지대 아동·청소년 중에서도 이주배경아동을 위한 지원은 아직 충분하지 않다. 특히 중도입국 아동은 언어 장벽이 학습 격차로 이어지기 때문에 교육의 조기 개입이 중요하다. 장기적으로는 강점인 '이중언어'를 자산으로 키우는 체계가 필요하다.

14 이원태 함께일하는재단 사무국장

제도 밖 아동·청소년은 조기개입도 중요하지만 자립준비 청년처럼 시설을 나오는 순간 지원이 끊기는 절벽이 더 큰 문제다. 지역 소멸도 단기간 사업으로는 해결이 어렵다. 관계·경제·문화 기반을 재생하는 중장기 기부가 지역의 회복탄력성을 키운다.

15 이은영 국제구조위원회 한국 대표

기후위기와 분쟁으로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인구는 늘지만, 국제 구호 예산은 감소하고 있다. 2026년에는 인도적 지원과 국제 개발협력에 대한 기부가 더 절실하다. 긴급 구호뿐 아니라 예방접종, 교육, 안전한 식수, 생계 회복 같은 기본 투자가 뒷받침돼야 위기극복과 강제이주민 지역사회가 장기적으로 자립할 수 있다.

16 이준모 컨설팅월드와이드한국 대표

기후재난 같은 범지구적 위기는 단기간 캠페인으로 끝낼 문제가 아니라 장기투자로 다뤄야 한다. 한국도 작지만 강한 국가로서 국제 연대의 역할을 키워야 한다. 동시에 공동체 안에서 소외되는 다문화·장애인 자원도 병행돼야 한다.

17 이행희 사랑의달팽이 회장

국내 청각장애인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

22 정태영 세이브더칠드런 사무총장

미등록 이주배경아동은 기본 건강·복지 서비스 접근이 낮다. 2026년에는 보호와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투자가 강화돼야 한다. 또 분쟁지역 아동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만큼 인도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23 정형석 밀알복지재단 상임대표

기후재난은 시민단체·기업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 결국 시민 누구나 일상 속에서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이 필요하다. 굿월 스토어 같은 순환경 플랫폼은 기부와 구매라는 생활 행동으로 탄소를 줄이고, 동시에 소외계층 일자리를 만들며 다층적 임팩트를 낸다.

24 조명환 월드비전 회장

사각지대 아동은 돌봄·정서·주거 등 기본 안전망에서 쉽게 누락되기 때문에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 기후위기·재난은 취약한 이웃에게 더 큰 피해를 남긴다. 이제는 긴급구호를 넘어 회복과 적응까지 이어지는 지속 투자, 더 빠른 대응과 예방적 지원이 필요하다.

25 조미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사무총장

전 세계 어린이를 위한 교육 투자는 모두의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다. 특히 인도적 위기 상황에서 교육은 단순 학습이 아니라 안정감을 주고 트라우마 이후 일상 회복을 돋는 생존의 고리다. 교육에 대한 지원은 아이들이 빈곤에서 벗어나 더 나은 삶을 만들 수 있다.

26 최운정 열매나눔재단 사무총장

사각지대 아동·청소년과 다문화·소수자 집단은 '자립 기반이 약하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단기 지원을 넘어 개인의 삶 전반을 함께 설계하는 '경로 설계형' 지원 모델이 효과적이며, 이는 자립·역량 강화·사회통합과도 맞닿아 있다.

27 최창남 기아대책 회장

기후대응은 생존 조건이 됐다. 동시에 한국은 저출생과 노동인구 감소 속에서 이주 배경 인구가 늘고 있다. 차별 없이 기반을 구축하도록 인식개선·정책 의제화·실질적 통합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

28 허재형 루트임팩트 대표

장수사회로 접어들며 세대가 다양해졌지만, 세대 갈등은 사회통합의 걸림돌이 돼 정치·경제·문화 전반의 비용을 키운다. 또 기후재난은 찾아졌지만 탈탄소 전환을 위한 국제 협력은 각국 이해관계로 지연되는 상황이다. 해결책이 있음에도 실행이 늦어 악순환이 커지는 만큼 '협력과 이행'에 더 많은 기부가 필요하다.

29 황신애 한국모금가협회 상임이사

1인 노인 가구 돌봄은 지역 공동체 활성화와 커뮤니티 기반 돌봄 연대로 가능하다. 세대 간 이해와 상호작용을 넓히는 다양한 시도가 중요하다. 이미 거스를 수 없는 단계에 있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삶의 방식 전환과 예방 중심의 지원이 필요하다.

30 황영기 초록우산 회장

가족돌봄아동과 이주배경아동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고 본다. 돌봄 부담으로 성장 기회를 잃는 가족돌봄아동과 사회적 무관심과 제도적 허점으로 인해 사각지대에 놓인 이주배경아동에게 생애주기별·가정 단위 지원이 필요하다.

굶주림 없는 세상, '제로 헝거'를 향한 인류의 새로운 다짐

도미닉 크라울리 컨선월드와이드 대표 인터뷰

기아 종식을 향한 인류의 '야심찬 계획'이 사실상 무산됐다. 지난 2015년 열린 유엔 총회에서 회원국들은 지속가능 발전목표(SDGs)의 하나로 제로 헝거(Zero Hunger)를 채택하고 2030년까지 지구상에서 기아(굶주림)를 끝내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기한 내 목표 달성을 불가능해 보인다. 2000년 이후 개선되던 기아 상황이 2016년을 기점으로 정체기에 들어섰기 때문이다.

컨선월드와이드는 기아로 고통받는 이들을 돋기 위해 설립된 국제 인도주의 단체로 2006년부터 매년 '세계기아리포트(GHR)'를 발간하고 있다. 올해 세계기아지수는 18.3점으로 '보통' 단계를 기록했지만 2016년 19.0점에 비해서는 크게 나아진 게 없다. 기아 종식의 꿈은 이대로 멀어지는 걸까. 지난 달 서울 명동에서 열린 '2025 세계기아리포트' 행사에서 도미닉 크라울리(Dominic Crowley) 컨선월드와이드 대표를 인터뷰했다.

해결할 의지

-세계기아리포트를 발간한 지 올해로 20년째다. 컨선월드와이드가 기아 문제에 집중하는 이유가 궁금하다.

"컨선은 아일랜드에서 시작된 단체다. 아일랜드는 과거 대기근(1845~1852년)을 겪으며 인구의 25%를 잃는 아픈 경험을 했다. 그 영향으로 기아 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깊게 형성돼 있다. 기아에 집중하는 이유도 이런 역사적 배경 때문이다. 세계기아리포트를 통해 전 세계 기아 상황을 매년 추적하고, 극심한 기아에 놓인 소말리아·남수단·아이티·방글라데시 등지의 사람들 등을 돋는다."

-지난 20년간 세계기아지수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나.

"눈에 띠는 성과가 있었다. 2000년 세계기아지수는 29.0점으로 '심각' 단계였지만 2016년 '보통' 단계로 개선됐다. 문제는 그 이후다. 개선되는 속도가 너무 느려졌다. 애초 유엔이 제로 헝거 달성을 시기를 2030년으로 잡았는데, 지금 속도면 2137년이 돼야 기아 수준이 '낮음(9.9 이하)'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한다."

-올해 기아 상황은 어떤가.

"세계 인구의 8%가 식량 불안과 기아를 겪고 있다. 기아 수준이 '심각' 또는 '위험' 단계로 분류된 나라가 42개국이나 된다. 유엔은 가자지구와 수단을 '기근 지역'으로 공식 선포했다. 동시에 두 곳이 기근 지역으로 선포된 건 유엔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국제원조 시스템의 실패를 상징하는 결과다."

-기아 종식을 가로막는 장벽은 무엇인가.

"기후위기와 분쟁이 가장 큰 원인이다. 특히 전 세계 기아의 75%가 분쟁과 연관돼 있을 정도로 분쟁 지역의 식량



도미닉 크라울리 대표는 "기아 종식을 향한 인류의 '새로운 다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 공여국들이 공적개발원조(ODA) 자금을 줄줄이 삭감한 것도 원인이다. 올해 인도주의 재원을 보면, 유엔이 필요하다고 발표한 금액의 28% 정도만 충당됐다. 쉽게 설명해서 네 명의 아이가 식량 지원이 필요하다면, 실제로는 한 명을 돋는 재원 밖에 없다는 뜻이다. 기아 종식을 다짐 했지만 사실은 '해결할 의지'가 부족한 것이다."

기아는 예방 가능하다

-'의지 부족'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의지 부족이라는 개념을 조금 더 확장해서 생각해야 한다. 기아를 없애야 한다는 도덕적인 의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의지, 분쟁을 예방하거나 중단하려는 의지, 그리고 ODA 비용을 충분한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지원하려는 의지

가 부족하다는 의미다."

-정치적 결단이 시급하다는 뜻인가.

"물론이다. 기근은 하루아침에 발생하지 않는다.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만약 가자지구나 수단에 적절한 지원이나 원조가 도달할 수 있었다면 기근을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다. 지금 세계가 겪고 있는 기아는 정치적 무관심이 불러온 방지된 위기다."

-어떤 해법이 필요할까.

"60년 전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다. '우리에게는 이미 기아를 해결할 능력과 역량이 있다. 필요한 건 의지뿐이다.' 이 말이 여전히 유효하다. 기아 감소가 정체되고 있는 이유는 의지와 행동이 뒤따르지 않아서다. 지금이 적기일 수 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새로운 다짐'이다. 기아 종식을 향한 다짐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행동에 나서야 한다."

-컨선월드와이드 한국사무소가 생긴 지 10주년이 됐다. 한국 기부자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코로나19 당시의 논의를 떠올려 보라. 'No one is safe until everyone is safe.' 모두가 안전해질 때까지 누구도 안전하지 않는 뜻이다. 이 말은 기아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아일랜드처럼 한국도 기아와 분쟁을 겪은 나라다. 굶주림과 영양실조가 어린아이들에게 끼치는 영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우리의 도움이 누군가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김시원 더버터 기자

꿀벌 집단폐사 막고 지역생태계 살린다

한국남부발전은 경남 하동과 경북 안동 지역에 밀원숲을 조성해 양봉농가를 지원한다. 밀원숲은 꿀벌이 꿀을 얻을 수 있는 나무로 구성된 숲을 말한다. 꿀벌 개체 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 밀원숲을 조성할 때는 개화 시기가 다른 나무들로 숲을 구성해야 한다. 이를테면 3월 회양목, 4월 벚나무, 5월 아끼시, 6월 밤나무, 7~9월 쌔리·쉬나무 등으로 구성하는 식이다.

하동 북천면 방화리의 꿀샘나무숲은 지역 주민과 한국남부발전 임직원, 한국양봉협회 등이 힘을 모아 만들었다. 숲 조성은 꿀 수확량 증가만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꿀벌 개체 수 붕괴는 농작물 수분 감소로 이어진다. 하동과 안동에 조성된 꿀샘나무숲 2개소가 완전히 자리 잡으면 연간 약 93.5t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효과도 예상된다.

꿀벌의 겨울철 폐사를 막는 고체사료 지원도 양봉농가 100가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한 가구당 3박스(총 60kg) 규모다. 고체사료는 월동기 꿀벌의 유일한 먹이가 되기 때문에 꿀벌의 개체 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필수재다. 지원 대상 농가에서 운영하는 벌통 수는 2498통으로 서식하는 꿀벌 수는 약 4970만 마리로 추정된다.

김준동 한국남부발전 사장은 "양봉 농가 매출증대와 타 지역 판매촉진으로 이어지도록 설계됐다"고 말했다.

문일요 더버터 기자

청소년 마음건강, 기업 사회공헌의 주요 의제로 떠오르다

글로벌 CSR 트렌드

'아동·청소년 마음건강'이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새로운 어젠다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한국에서는 아동·청소년 사망 원인 1위가 자살로 집계될 정도로 마음건강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어 기업들의 참여가 확대되는 추세다.

기업들이 아동·청소년 마음건강에 주목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분석된다. 첫째, 효과와 변화를 비교적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마음건강은 개입(프로그램·상담·교육) 이후 변화가 생활과 행동에서 바로 드러나는 분야다. 스트레스가 줄거나 일상 지표가 개선되면 간단한 설문만으로도 전후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둘째, 기업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아동·청소년 마음건강은 기업이 보유한 기술·콘텐츠·공간·플랫폼 등을 활용하기 좋은 분야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상담, 학교·지역과 연계한 마음건강 프로그램, 캠페인을 통한 인식 개선 등 다양한 CSR 활동이 가능하다.

셋째, 사회적 공감대가 높은 의제다. 아동·청소년 마음건강은 세대나 이념을 넘어 누구나 중요성을 인정하는 사회 이슈다. 이미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명분과 정당성을 쉽게 확보할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청소년 마음건강



지난달 20일 유니세프 '더아동페스티' 현장에서는 아동·청소년 마음건강을 돋는 기업들의 사례가 소개됐다.

[사진 유니세프]

을 위한 글로벌 연대(Global Coalition for Youth Mental Health)'다. 조말론·스포티파이·소니 등 주요 기업들이 함께하는 이 연합체는 2022년 유니세프 본부 주도로 출범했다. '2030년까지 전 세계 150개국 5000만 명의 아동이 더 나은 마음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

회와 함께 '마음건강 문해력' 사업을 진행 중이다. 아동·청소년이 스스로 건강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돋는 '나를 찾는 마음여행' 프로그램을 서울시내 초중고등학교로 확산하고 있다. 현재까지 약 15만 명의 아동·청소년이 교육에 참했다.

한국에서도 기업들의 참여가 늘고 있다. 신한카드는 유니세프 한국위원

로그램, 재난현장에서 아이들의 마음 건강을 지켜주는 LG유플러스의 '이동형 놀이터' 사업이 소개됐다. 미국 기업인 브이알챗(VRChat)은 온라인 공간에서 위험 징후가 포착된 청소년에게 소속감을 제공하고 실제 도움으로 연결하는 디지털 안전망 구축 사례를 공개했다.

조미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대표는 "아동·청소년 마음건강은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며 "더 많은 기업이 함께할 수 있도록 참여 방식을 열어두고 협력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김시원 더버터 기자

이주민 지원의 사각지대는 어디인가

바보의나눔 ‘사각지대 이주민 지원’

한국 사회에서 이주배경 인구는 더 이상 소수가 아니다. 국가데이터처는 지난 8일 국내 이주배경인구를 처음으로 집계한 ‘2024년 이주배경인구 통계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이주배경인구는 271만5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5.2%를 차지했다. 인구 20명 중 1명은 본인 또는 부모가 외국인인 셈이다. 증가 속도도 빠르다. 이주배경 인구는 전년 대비 5.2% 늘어나 총인구 증가율(0.1%)의 50배에 달하는 증가세를 보였다.

이주민 지원 체계는 이런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이주민 지원 정책은 등록된 체류 외국인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미등록 이주민과 난민, 단기 체류자는 공적 지원 체계에서 배제돼 있다. 이로 인해 제도가 미처 달지 못하는 ‘사각지대’는 빠르게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귀국도 생존도 어려운 사람들

베트남 출신 이주 여성 A씨는 같은 국적의 남편과 결혼해 한국에서 아이를 낳았다.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뇌성마비를 앓았다. 상태가 위중해 귀국도 어려웠다. 외국인 신분인 아이에게 적용되는 병원비는 내국인의 최대 10배에 달했다. 아이를 돌보느라 가구 소득은 절반으로 줄었고, 비자가 만료되면서 아이는 미등록 아동이 됐다. 매달 수백 만원의 치료비가 필요했지만, 정부의



이주민 지원단체 올프렌즈에서 운영하는 자조모임 참가자들. [사진 바보의나눔]

장애인 지원은 받을 수 없었다.

이 같은 제도적 공백을 메우는 최소한의 안전망은 민간에서 마련되고 있다. 중추적인 역할을 맡은 곳은 중간지원조직인 재단법인 바보의나눔이다. 바보의나눔은 고 김수환 추기경의 정신에 따라 2011년 이주민을 위한 사업을 시작했다. 2018년부터는 공모배분사

업에 ‘사각지대 이주민 지원사업’ 분야를 공식적으로 신설해 현장의 소규모 단체들을 지원하고 있다. 2011년부터 올해까지 함께한 단체는 총 144곳, 누적 지원액은 약 60억원에 달한다. 단체당 최대 3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미선 바보의나눔 나눔사업파트장은 “이주 배경 장애인, 미등록 아동, 무국적 위기 여성 등 시대 변화에 따라 가장 취약한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발굴해 돋고 있다”고 말했다.

바보의나눔이 특히 주목한 분야 중 하나는 ‘의료 사각지대’다. 이주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광주이주민건강센터, 올프렌즈 등 현장 단체와 협력해 무료 진료소와 이동 클리닉 운영을 지원해왔다. 만성질환자 관리와 건강검진, 보건 교육, 예방접종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체계를 뒷받침한다. 임신·출산을 앞둔 이주배경 여성 역시 주요 지원 대상이다. 정금자 성모의집 원장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이주민은 자연 분만만 해도 약 500만원, 응급 수술을 하면 1000만원까지도 듣다”며 “바보의나눔 배분사업을 통해 분만 전 검사비와 출산 의료비, 아기의 분유·물티슈·기저귀 등을 지원했다”고 말했다.

민간 지원을 넘어 제도 개선으로

사각지대는 이주배경 아동들이 청년기로 접어드는 순간에도 드러난다. 한국에서 태어났거나 영유아기에 입국한 이들은 한국 생활에 익숙하지만, 성인이 되는 순간 체류 자격을 확보해야 하는

벽에 부딪힌다. 유학생 비자(D-2)나 인도적 체류 허가(G-1-6)를 통해 체류를 이어갈 수는 있지만 일상 곳곳에서 어려움이 나타난다. 내국인보다 비싼 등록금을 부담해야 하며, 비자 조건상 아르바이트도 쉽지 않다. 김다영 성공회 용산나눔의집 활동가는 “학교와 자자체, 민간 영역에서 제공하는 대부분의 장학금은 대상을 국내 국적자로 한정해 이주배경 대학생들은 마땅한 지원처를 찾기 어렵다”며 “2025년 한 해 바보의나눔 지원금으로 50여 명의 장학생을 선발해 한 학기 최대 2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했다”고 말했다.

바보의나눔과 현장 단체들은 단기 지원을 넘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 마련에도 나서고 있다. 장애 이주민 지원사업을 펼쳐온 이주민과 함께는 지난 9월 이주 인권 단체와 장애인권 단체, 법률지원 단체들과 함께 ‘장애이주민 권리보장 네트워크’를 발족하고, 간담회와 캠페인 등을 통해 공론화 활동을 본격화하고 있다. 정진숙 이주민과 함께 상임이사는 “민간의 노력만으로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며 “현장에서 확인된 문제를 토대로 정부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속 가능한 지원으로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인권 바보의나눔 상임이사는 “모든 인간은 존엄한 존재로, 어떤 이유도 배척의 근거가 될 수 없다”며 “바보의나눔은 앞으로도 사각지대를 효과적으로 메우는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지은 더버터 기자

부스러기사랑나눔회, 학대 피해 장애아동에게 맞춤형 돌봄 제공한다

부스러기사랑나눔회 아동복지연구소가 학대피해장애인아동 돌봄 종사자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최근 서울·인천·대전·부산에 이어 수원과의 정부에서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했다.

부스러기사랑나눔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으로 학대와 장애라는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는 아동·청소년을 위한 전문돌봄 체계 구축을 목표로 2022년부터 ‘학대피해 아동청소년 지원 및 보호체계 구축사업’을 전국 단위로 실시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지난 7월 시작한 3차년도 사업의 일환이다.

1차년도에는 쉼터 운영·돌봄 표준 마련을 위한 매뉴얼과 종사자 교육 교재 10종을 개발했다. 2차년도에는 전국 26개 기관, 90명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했으며, 온라인 교육 플랫폼 ‘드림풀 교육센터’를 개설해 비대면 학습 환경을 구축했다.

3차년도에는 실습 중심 교육과 사례 기반 학습을 강화하고 있다. ‘찾아가는 교육’ 외에도 온라인 교육 5개 과목을 추가 개설해 관심 있는 누구나 무료로 수강할 수 있도록 했다.

윤종선 부스러기사랑나눔회 대표는 “장애와 학대를 동시에 경험한 아동에게는 전문성과 세심함을 갖춘 돌봄이 필수”라며 “교육의 지속성과 접근성을 높여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수준의 전문 돌봄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지은 더버터 기자

기부자들이 유산기부를 망설이는 세 가지 이유

초록우산 등 자선단체들이 이끄는 ‘한국형 레거시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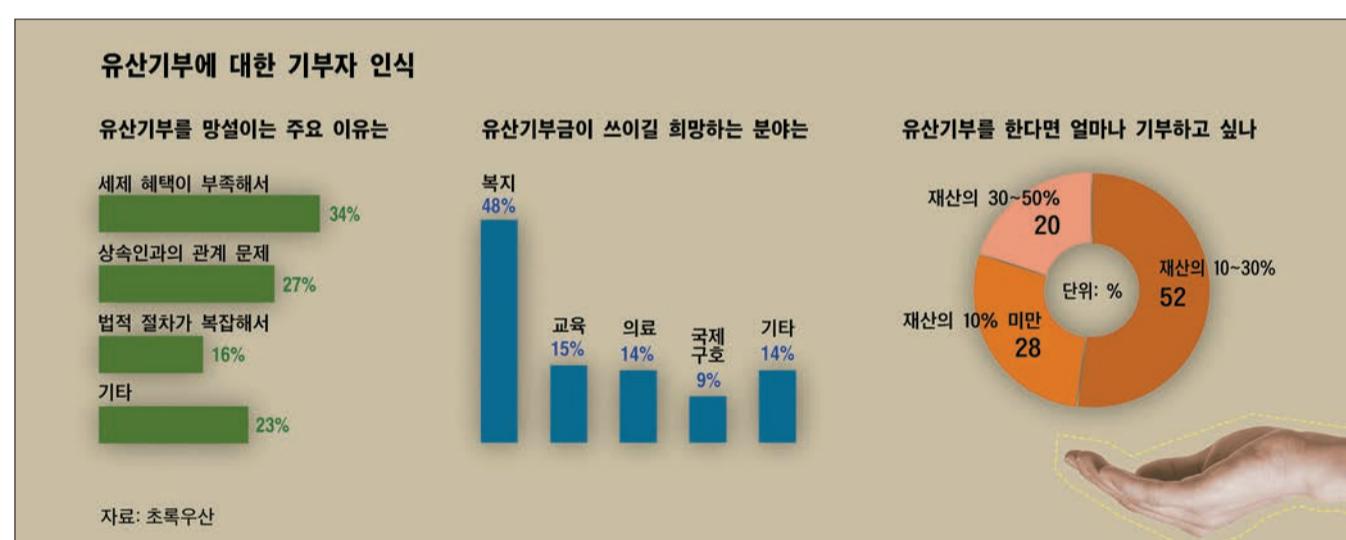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경우, 유산을 기부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초록우산이 지난달 기관의 중·고액 후원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유산기부에 대한 기부자 인식’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2%는 ‘기부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현실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국내 유산 기부액은 전체 기부금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미국과 영국에서 유산 기부가 전체 기부의 주요 층으로 자리 잡은 것과 대조적이다.

기부자들은 왜 선뜻 유산기부를 실천으로 옮기지 못하는 걸까. 이번 조사에서 유산기부를 망설이게 하는 주된 요인으로는 ▶세제 혜택의 부족(34%) ▶상속인과의 관계 악화 우려(27%) ▶복잡한 법적 절차(16%) 등이 꼽혔다. 정수영 초록우산 임팩트기금본부장은 “기부자들이 유산기부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라, 제도와 환경이 기부자의 결정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기부하면 세금이 줄어들까?”

유산기부의 가장 큰 장벽은 세제 혜택이 크지 않다는 점이다. 정본부장은 “현장에서 기부자들이 가장 먼저 하는 질문은 ‘유산기부를 하면 상속세가 얼마나 줄어드느냐’는 것”이라며 “좋은 일을 하고 싶어도 가족의 상속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면 결정을 망설이게 된다는 반응이 많다”고 말했다.



현행법에서는 유산기부를 해도 세금이 바로 줄지 않는다. 세금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전체 재산 금액(상속세 과세액)에서 기부한 금액을 제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기부자가 체감하는 절세 효과는 크지 않다. 이 같은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대안으로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한국형 레거시 10’ 제도가 거론된다. 상속재산의 10%를 기부할 경우 과세가 약 조정에 그치지 않고,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금 자체를 일정 비율 감면해 주는 구조다. 영국의 ‘레거시 10’ 제도를 한국에 맞게 설계한 제도로, 영국에서는 2012년 제도 시행 이후 유산기부가 크게 늘었다. 2024년 기준 약 45억 파운드(약 8조6000억원) 규모로 주요 자선단체 모금액의 약 30%에 이른다.

초록우산과 한국자선단체협의회 등 주요 단체들은 제도 도입을 촉구하고 사

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달 안에는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같은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세제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한국 사회 특성을 고려할 때 ‘유산을 기부하면 세금이 실제로 줄어든다’는 명확한 신호를 준다면 유산기부 활성화의 실질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가족과의 갈등을 피할 수 있을까?”

두 번째 이유는 상속인과의 관계에 대한 우려다. 실제로 유산기부 의지는 있으나 자녀·형제 등 가족과의 갈등, 유류분 분쟁 가능성을 걱정해 결정을 미루는 사례가 적지 않다. 현행 제도에서는 공의 법인에 기부한 재산도 유류분 산정 기준에 포함되기 때문에 사후에 유류분 반란 청구가 제기될 경우 기부 재산을 둘러싼

분쟁을 피하기 어렵다. 정본부장은 “공의법인에 기부한 재산을 유류분 산정에서 제외하는 제도 보완이 이뤄진다면 기부자의 의사를 명확하게 보호하면서 가족 간 분쟁을 예방하는 효과적인 장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미 가족 간 갈등이 깊은 상황에서 재산이 더 큰 분쟁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유산기부를 선택하기도 한다. 이 경우 유언대용신탁·기부신탁 등 신탁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3자인 신탁사와 공의법인이 정해진 원칙에 따라 재산을 관리·집행하면 재산 귀속을 둘러싼 직접적인 충돌을 완화하고, 기부자의 의사와 가족의 최소한의 권리가 동시에 보호할 수 있다.

“유산기부 절차는 왜 이렇게 복잡할까?” 복잡한 절차 역시 유산기부를 가로막는 장애물로 꼽힌다. 유언장 작성과 공증, 최지은 더버터 기자

상속세 신고,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 정리 등 여러 절차가 한꺼번에 얹혀 있기 때문이다. 가족 관계나 건강 상태, 자산 구조 등 개인 상황에 따라 고려할 내용도 달라 유산기부는 더욱 어렵게 느껴진다. 초록우산과 같은 공익법인에서는 법률·세무·금융 전문가와 협력해 상속 전반을 아우르는 맞춤형 상담과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정본부장은 “유산기부의 부담을 전문가들이 함께 나누는 구조가 갖춰지면 유산기부는 충분히 안전하고 실현 가능한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초록우산 설문에서는 유산기부의 잠재력도 확인됐다. 유산기부를 고려하는 응답자 중 52%는 “재산의 10~30%를 기부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30~50%라는 응답도 20%에 달했다. 유산기부가 활성화된 미국과 영국에서 상징적 기준으로 여겨지는 ‘유산의 10% 환원’과 비교해도 낮지 않은 수준이다. 기부금 사용처로는 국내 복지(48%)와 교육(15%)을 선호하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 복지 사각지대를 메우고 다음 세대를 지원하고자 하는 기부자들의 의지도 드러났다. 황영기 초록우산 회장은 “유산기부에 세제 혜택을 도입할 때 단기적인 세수 감소만을 볼 것이 아니라, 기부 확대로 사회적 부담이 완화되는 효과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가상자산과 주식, 보험, 부동산 등 기부 대상 자산이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이를 포용할 제도적 기반 마련도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지은 더버터 기자

난민 30만 명을 위한
'마지막 병원'을 지켜주세요

국제구조위원회

소중한 이름을 기억하는 법,
추모기부

굿네이버스

나라를 위한 호국영웅의
희생에 보답할 때입니다good
people기후변화 대응 캠페인
'나무를 지켜라'희망천구
기아대책홀로 선 열여덟 청년에게
버팀목이 되어주세요대한사회복지회
Korea Welfare Services보호대상 장애아동을
'도닥도닥' 안아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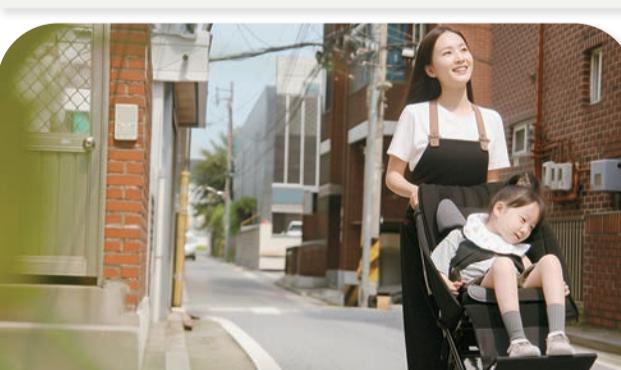
밀알복지재단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는
이주민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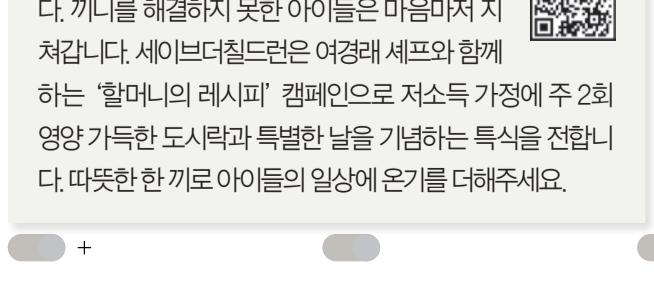
바보의나눔

학대피해 아이들에게
크리스마스를 선물해 주세요dreamfull
부스러기사랑나눔회청각장애 아이들과
세상을 다시 이어주세요시랑의달팽이
THE SNAIL OF LOVE결식위기 아동에게
따뜻한 한끼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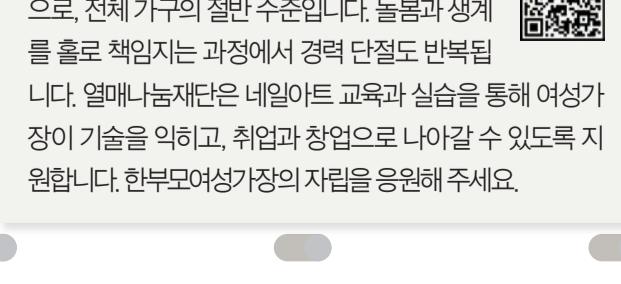
Save the Children

빛나는 내일을 위한 도전,
여성가장 지원사업 '더나은내일'열매나눔재단
MERRY YEAR FOUNDATION아이의 하루를 밝히는
불빛을 선물해 주세요

World Vision

국내에는 약 27만 명의 결식위기아동이 있습니다.
끼리를 해결하지 못한 아이들은 마음마저 지쳐집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여성가장과 함께하는 '할미니의 레시피' 캠페인으로 저소득 가정에 주 2회 영양 기록과 특별한 날을 기념하는 특식을 전합니다. 따뜻한 한끼로 아이들의 일상에 온기를 더해주세요.

한부모여성가장의 월평균 소득은 250만 6000원



으로, 전체 가구의 절반 수준입니다. 돌봄과 생계를 흘려 책임지는 과정에서 경력 단절도 반복됩니다. 열매나눔재단은 네일아트 교육과 실습을 통해 여성가장이 기술을 익히고, 취업과 창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아이들에게 조명등을 전달해 안전한 밤을 선물하고자 합니다. 아이들의 일상에 작은 불빛을 켜주세요.

지금 당신의 마음이 향하는 곳에 기부하세요



2025 파이워크

오늘(18일)부터 31일까지 더버티와 국내 주요 비영리단체가 함께하는 '2025 파이워크(Pie Week)'가 진행됩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열리는 '파이워크'는 민간 주도의 기부문화 확산 캠페인입니다. 연말에 소중한 사람들과 파이 한 조각을 나누듯, 일상에서 가볍게 기부에 참여하면서 나눔이 주는 달콤함과 따뜻함을 경험해 보자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거창한 결심이나 큰 돈이 아니라 각자의 방식으로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기부를 제안합니다.

2025 파이워크에는 총 23개 단체가 참여해 현장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지난해 파이워크에 12곳이 참여했던 것과 비교하면 캠페인 규모가 일년 만에 두 배 가까이 확대됐습니다. 올해는 ▶국제구조위원회 ▶굿네이버스 ▶굿피플 ▶기아대책 ▶대한사회복지회 ▶밀알복지재단 ▶나눔포털 ▶나눔터 ▶나눔나눔회 ▶사랑의달팽이 ▶세이브더칠드런 ▶열매나눔재단 ▶월드비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유엔난민기구 ▶초록우산 ▶컨설팅월드와이드 ▶케이와이케이파운데이션 ▶플랜인더나셔널코리아 ▶한국컴퍼션 ▶한국혜비티드 ▶함께일하는재단 ▶함께하는사랑밭 ▶홀트아동복지회 등이 함께합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기부를 일상적이고 즐거운 문화로 확산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블랙프라이데이'와 '사이버 먼데이'로 대표되는 소비 중심의 연말 시즌 이후, 그 다음 화요일을 '기빙터즈데이(Giving Tuesday)'로 정해 더 많은 사람이 기부에 동참하도록 독려합니다. 영국의 '레드노즈 데이(Red Nose Day)' 역시 코미디와 캠페인을 결합해 기부를 하나의 축제처럼 즐길 수 있도록 만든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더버티와 파이워크 참여 단체들은 지난 1년 동안 기부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위한 시도를 이어왔습니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인 '더기버스50(The Givers 50)'은 각자의 자리에서 꾸준히 나눔을 실천해 온 일상의 기부자들을 조명한 프로젝트입니다. 참여 단체들의 주전은 바탕으로 50명을 선발하고, 이들의 나눔 이야기를 전파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건강한 기부문화를 확산했습니다.

이번 연말에는 더 많은 사람이 기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캠페인을 준비했습니다. 더버티 지면과 파이워크 온라인 페이지를 통해 한부모가정·장애인·호국영웅·자립준비청년·난민 등 도움이 절실한 이웃들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기부하고 싶은 단체와 분야가 적힌 박스의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활용하면 캠페인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기부는 이웃과 연결되는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연말에 소중한 이들과 따뜻한 파이를 나누는 마음으로 기부를 실천해 보는 건 어떨까요.

김시원·문일요·최지은·박선하 더버티 기자



파이워크 페이지 바로가기

매일 3만 3000명의
어린이가 '신부'가 됩니다

unicef

추위를 피할 곳 없는
아이들에게 온기주세요UNHCR
The UN Refugee Agency
유엔난민기구외로운 아이들의
따뜻한 산타가 되어주세요초록우산
초록우산 어린이 기관

"따뜻한 집에서 겨울을 보내고 싶어요." 친구들처럼 외식을 하고 싶어요." 흥겨운 캐릭터를 달고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2007년부터 아이온 초록우산 신타원정대는 올해도 전국 사업장을 통해 아이들의 소원을 받아 산물을 전합니다. 아이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반가운 산타가 되어주세요.

메마른 캐나 땅에
희망의 고구마를 보내주세요CONCERN
worldwide
컨센트럴월드와이드제 결혼을
축하하지 마세요PLAN
INTERNATIONAL'소녀가 아이를 낳는 마을'의
내일을 바꿔주세요Compassion
세계 어린이를 살피는
비즈니스의 사랑

도로도 학교도 병원도 없는 필리핀 북민다나오섬에서는 가난과 조혼이 대물림됩니다. 아이들은 너무 이른 나이에 엄마가 되고, 먹을 것이 없어 생존을 위협받습니다. 한국컴퍼션은 교육과 보건, 양육, 정서 지원으로 아이들을 돋냅니다. 한 명의 후원이 아이의 내일을 바꿉니다. 이번 연말엔 시장의 기적에 함께해주세요.

전세사기 피해 청년의
집을 고쳐줍니다한국 해비티드
Habitat
for Humanity
Korea자립준비청년에게 필요한 건
'일할 기회'입니다화상 환아의 건강한 내일을
지켜주세요

함께하는 사랑방

예상치 못한 사고로 하루아침에 삶이 달라진 아이들, 화상 환아들은 가려움과 통증에 담배를 이루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보습 관리와 재활, 심리 지원이 필요하지만 대부분 비급여로 부담이 큽니다. 의료비, 화상 약품, 심리·정서 지원으로 이들의 일상 회복을 도울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편안한 나날을 위해 관심을 나눠주세요.

한부모 엄마의
자립을 돋는 솔루션HOLTAE
Holtae
Foundation청소년 스포츠 유망주의
가능성을 키워주세요

위기브 고향사랑기부 13만 5천원 환급 효과!
스타벅스 5천원 상품권 증정

STARBUCKS
5,000원

“이재명 대통령의 K-콘텐츠 공약, 성수동에서 실현할 수 있다”

안지훈 소셜혁신연구소 이사장 인터뷰

수풀이 우거져 있던 자투리땅이 어떻게 연 400만명이 찾는 ‘핫플레이스’가 됐을까. 서울 성동구에 있는 ‘언더스탠드에비뉴’ 이야기다. 서울숲 진입로에 100여 개의 컨테이너로 조성한 독특한 공간으로, 전시·행사·팝업스토어가 1년 내내 열린다.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청년 창업가들의 업무공간, 청소년과 밭달장 애 예술인을 위한 교육공간, 취약계층 여성들의 일터로도 활용되고 있다.

지난달 언더스탠드에비뉴에서 안지훈(46) 소셜혁신연구소 이사장을 만났다. “성동구는 최근 10년 새 서울에서 가장 극적인 변화와 혁신을 겪은 지역입니다. 언더스탠드에비뉴는 그런 혁신을 상징하는 공간이죠.”

그는 10년 전 성동에 혁신 바람을 일으킨 장본인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임기를 시작한 2014년부터 4년간 ‘구정 기획단장’을 맡아 소위 어공(어쩌다 공무원) 생활을 했다.

“당시 성동은 전체적으로 점체돼 있었어요. 구청 분위기도 비슷했죠. 지방 행정이라는 게 극단적으로 역동적일 수 있지만 아무 것도 안 하려면 또 그럴 수 있거든요. 공무원이 살아있어야 국민들이 행복하고 편안해진다고 생각해서 이것저것 일을 벌였습니다.”

성동구청에 근무하면서 그는 성수도 시재생 사업,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사업, 소셜벤처 육성 및 지원 사업 등을 진행했다. 언더스탠드에비뉴도 그때 기획한 프로젝트다. 대기업이 양쪽으로 땅을 사는 바람에 애매하게 끼어 있던 땅. 아무도 신경 안 쓰는 늪지대 같은 땅을 새로운 공간으로 바꾸고 싶었다.

“영국에 ‘박스 파크’라는 게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컨테이너로 만든 팝업 복합문화공간으로, 5년마다 장소를 이동하면서 주변 지역을 살리는 콘셉트였죠. 이걸 벤치마킹해 언더스탠드에비뉴를 설계했습니다. 소외되고 힘든 사람들이 교육도 받고 비즈니스도 하면서 자립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어공’ 생활을 끝낸 뒤에는 구청 밖에서 혁신을 이어가는 중이다. 행정에서 경험한 내용을 학문적으로 구체화하고 싶어서 8년간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다. 사회적 가치·소셜벤처의 개념을 확산하기 위해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급하기도 했다. 2018년에는 소셜혁신 연구소를 설립해 현장에서 직접 혁신을 실험하고 있다.

“성동구는 시즌제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시즌1’은 혁신가들이 만들어낸 자생



안지훈 소셜혁신연구소 이사장은 “성수동은 대통령의 K-콘텐츠 공약을 실험하고 실현할 수 있는 곳”이라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적인 생태계입니다. ‘시즌2’는 도시재생과 도시계획 등 행정의 지원이 더해지면서 형성된 생태계입니다. 성동에 지식 산업센터가 늘어날 수 있었던 건 행정이 용적률을 400%에서 480%로 상향했

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좋은 자본들이 성동에 들어와 함께 생태계를 형성할 수 있었죠. 지금 성동은 ‘시즌3’입니다. SM·크래프톤·무신사 등 대기업 자본이 들어와 공존하는 모습이죠.”

“지방정부의 혁신도 이런 방향이어야 합니다. 진정한 혁신이란 ‘격차’를 줄이는 것. 아무도 배제하지 않고 소외되지 않는 것. 성동구의 ‘시즌4’도 이런 모습이길 바랍니다.”

김시원 더버터 기자

혼합금융으로 동남아 기후 문제 해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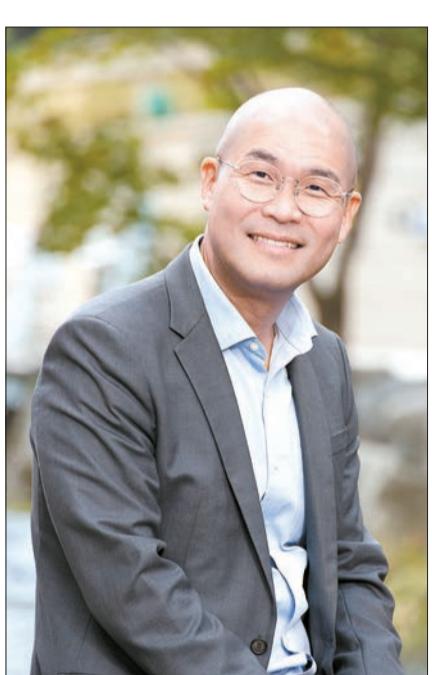
권기정 NHARP 대표 인터뷰

자본은 시장을 따라가기도 하지만 시장 흐름을 바꾸기도 한다. 기후테크 영역에서 이런 역할을 하겠다는 2억 달러(약 2900억원) 규모의 혼합금융이 활동을 시작한다.

유엔 산하의 녹색기후기금(GCF)이 조성한 기후테크펀드(CTF)는 전체 자금의 약 40%를 GCF가 우선순위로 부담하는 구조다. 공적자금이 리스크를 흡수해 민간 자금을 모으는 촉매 역할을 한다. 연 8% 우선수익률을 전제로 펀드가 운용되는 11년간 온실가스 164만t 감축과 230만 명 수혜를 목표로 ‘수익’과 ‘임팩트’를 동시에 추구한다. 지난 7월 NH투자증권은 아시아 증권사 최초로 CTF 펀드 운용사로 선정됐다. NH투자증권의 싱가포르 현지 법인 NH앱솔루트리턴파트너스(이하 NHARP)는 펀드의 설립과 운용을 함께 맡는다. 최근 투자자(LP) 모집에 나선 권기정 NHARP 대표를 서울 광화문에서 만났다.

-기존 펀드와의 차별점은.

“CTF는 혼합금융의 전형적이고 교과서적인 형태로 설계됐다. 공적 자금을 촉매성 자본으로 두고, 민간 자금을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투자는 한국·일본·싱가포르·미국·EU 등 선진국에서 이미 사업 성과가 검증된 기후기술 기업에 집행한다. 이를 기업이 인도네시아·베트남·필리핀·캄보디아·라오스 등 동남아 5개국에 진출해 기후기술을 전파하도록 지원한다. 자본은 선진국으로 투입되지만, 임팩트는 동남아에



권기정 NH앱솔루트리턴파트너스 대표.

이경호 기자

서 실현되는 모델이다.”

-어떤 기관이 참여하나.

“NH투자증권·NHARP·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가 함께 진행한다. 투자 기업 발굴과 실사, 사업 개발을 NH투자증권 탄소금융부와 NHARP가 맡는다. 현지 시장 진입을 위한 비즈니스 컨설팅과 법률 지원 등 액셀러레이팅도 제공할 예정이다. GGGI는 현지 파트너 연결, 정부 인허가 등 로컬 파트너십 형성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민간 투자자 관점에서 이점은.

“민간 LP에 원금 회수와 연 8% 우선 수익 분배를 가장 우선한다. 손실이 발생하면 GCF가 먼저 부담해 민간 투자자의 하방 위험을 최소화한 구조라고 보면 된다. 운용사(GP)인 NHARP는

최대 2만 달러, NH농협그룹도 LP로 최소 20만 달러를 투자해 책임 운용을 강화할 예정이다.”

-어떤 분야에 집중하나.

“크게 ▷신재생에너지 ▷송·배전과 에너지저장장치(ESS) ▷저배출 교통수단 ▷주거·산업 효율화 기술 ▷농업 기술 ▷수자원 관리 ▷폐기물 관리 등 7개 영역이다. 이 중에서도 신재생에너지, 저배출 교통수단, 농업, 폐기물 분야를 핵심축으로 본다. 투자는 매출 100억원대의 초기 기업부터 기업 가치 5000억원 수준의 중견기업까지 폭넓게 검토한다. 주요 타깃은 이미 흑자를 내고 있으며 비즈니스 모델이 검증된 기업이다. 성장 궤도에 오른 기업이 동남아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일반 투자자와 GCF가 원하는 성과가 다를 것 같은데.

“일반 금융사는 여전히 임팩트보다는 수익에 관심이 많다. ‘기후 기술은 돈이 안 된다’는 인식도 가지고 있다. 이번 펀드를 통해 이런 편견을 깨는 게 목표다. 기후 임팩트와 수익성을 동시에 보여주고 싶다. 수익을 최우선으로 보는 금융사들이 임팩트를 경험하고 그 가치를 인정하는 순간 시장이 바뀐다. 패밀리오피스와 ESG 예산을 가진 국내 금융기관, 개도국 금융기관도 중요한 타깃이다.”

-궁극적인 목표는.

“지속가능금융이 유행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이번 펀드를 마중물로 삼아 기후 임팩트의 파이를 키워가고 싶다.”

최지은 더버터 기자

SPC, 일본·중국으로 간다

(사회성과인센티브)

소셜섹터에 부는 ‘한류’

우고 이를 점검할 지표를 구축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3년간 ▷한부모 가정 주거지원과 지역 커뮤니티를 조성하는 ‘리브리 퀄리티허브(LivEQuality HUB)’ ▷파돌림 피해 학생을 돋는 ‘스탠바이’ ▷병원 직원을 커뮤니티 간호사로 키워내는 ‘CNC’ ▷발달장애인의 적성 맞춤형 일자리 찾기를 돋는 ‘키즈키’ 등이 성과를 측정하고 인센티브를 받았다. 우오마사타카 JFRA 회장은 “SK그룹과 사회적 가치연구원의 도움으로 임팩트 평가와 투자 분야에서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지난 4월 일본 외무성은 일본국제 협력단(JICA·자이카) 관련 법을 개정하면서 정책 집행 방향성을 담은 개요 자료에 SPC의 핵심 활동 원리인 성과 기반금융을 활용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최근에는 중국에서도 지속적인 문의가 오면서 사회적 가치연구원이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자국 기업의 활동 내용을 외부에 공유하는 것을 극도로 꺼리는 중국 특성상 이런 협력을 진행하는 것은 드문 일이다. 나석권 사회적 가치 연구원장은 “일본과 중국 등 해외에서 SPC를 찾는 것은 지난 10년간 SK그룹이 진행해온 사회적 가치 평가·측정·보상의 경험이 글로벌 단위에서 인정받기 시작했다는 것”이라며 “일본과 중국을 자문하는 과정에서 배운 세계 각국의 다양한 사회 문제 해결과 측정 방식을 다시 국내 SPC 현장에 도입해 대한민국의 사회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박선하 더버터 기자

지원 넘어 협업으로…‘H-온드림’이 키운 임팩트 생태계 13년

현대차 정몽구 재단 ‘H-온드림 스타트업 그라운드’

스타트업의 실패 원인은 대부분 비슷하다. 기술이 부족하거나 창업가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다. 초기 투자를 유치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필요한 자본과 정보의 연결 고리가 탄탄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달 17일 열린 ‘2025 임팩트 스타트업 데이’ 현장에서도 이 문제가 반복적으로 등장했다. 패널들은 공통적으로 “임팩트 스타트업은 아이디어나 기술만으로 성장하기 어렵고, 단계마다 필요한 자본과 정보를 적시에 연결하는 구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종규 식스티헤르츠 대표는 “에너지 전환처럼 구조적인 문제를 다루는 기업일수록 혼자 움직이는 데 한계가 있다”며 “결국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성장을 좌우한다”고 말했다.

현대차 정몽구 재단은 이 간극을 메우는 방식으로 지난 13년간 임팩트 스타트업 육성사업 ‘H-온드림 스타트업 그라운드’(이하 H-온드림)를 운영해 왔다. 개별 기업을 키우는 데서 멈추지 않고, 펠로들 사이의 이너셔티브 구축에 초점을 맞췄다. 지금까지 H-온드림을 거쳐 간 스타트업은 300곳이 넘는다. 펠로 기업이 늘면서 자연스럽게 네트워크가 활동하기 시작했다.

지원이 끝나면, 협업이 시작됐다

임팩트 생태계에서 재단의 역할은 시스템 빌더에 가깝다. 스타트업은 아이디어에서 출발해 R&D, 사업화, 확장, 글로벌 경쟁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성장이 필요하다. 각 단계마다 요구되는 자본과 네트워크도 성격이 다르다. 기업 혼자의 힘만으로는 시장과 투자를 설득하기

어렵다. 임팩트 스타트업 데이의 패널토론에서 정윤환 카카오 실장은 “국내 스타트업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지점은 정보 부족”이라며 “해외 진출이나 대기업 협업 과정에서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무엇을 점검해야 하는지에 대한 경험 정보가 축적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경험을 공유되는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H-온드림은 이 문제를 지원금 확대를 넘어 플랫폼 구축으로 풀어왔다. 자본·네트워크·기업가정신 등 스타트업의 성장 요소를 분리하지 않고 한 구조 안에서 작동하게 하는 방식이다.

그렇다 보니 펠로 기업 간 업무협약(MOU) 체결 사례도 잇따른다. 누적 펠로 기업은 354곳. 77%에 이르는 생존율 덕분에 가능한 구조다. 지난해 H-온드림에 참여한 어글리랩(12기)은 한 기수 앞서 펠로기업이 된 에코넥트(11기)와 지난 3월 업무협약을 맺고 협력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생활폐기물 수거·선별 역량을 가진 어글리랩과 폐비닐 기반 리사이클 소재를 개발·제조하는 에코넥트는 각자의 강점을 결합해 기업 폐기물을 다시 원료와 제품으로 순환시키는 구조를 만들었다. 대기업 물류센터 폐비닐 선순환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가정용 수거 봉투까지 재활용 소재로 전환하면서 비용 절감과 탄소 저감 효과를 동시에 거두고 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AI 정보 접근 플랫폼을 운영하는 루트파인더즈(12기)는 장애아동 대상 AR 재활 게임 잼잼테라퓨틱스(12기)와 장애인을 위한 AI·에이블테크 기술 교류 확대를 위한 업무협



자료: 현대차정몽구재단
그래픽=문유비

약을 체결했다. B2G 사업과 정부 R&D를 공동 추진하고, 각자의 전문 영역인 접근성 기술과 재활 솔루션을 결합한 서비스 고도화를 모색하고 있다.

기업 간 협업이 기획된 성과는 아니다. 최재호 현대차 정몽구 재단 사무총장은 “H-온드림은 협업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대신 기업들이 서로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시간과 맥락을 제공하고 기업들은 전략적으로 협업을 선택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좋은 기업이 아니라 ‘필요한 기업’을 키운다
H-온드림의 또 다른 특징은 임팩트 스타트업의 기준을 명확히 재정립했다는 점이다. 재단은 임팩트 스타트업을 ‘좋은 일을 하는 기업이 아니라 시급성과 중대성이 높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재단은 이 기준을 선발과 지원 전반에 적용해 왔다. 단기 성과보다 문제 해결의 지속성, 기업가정신, 확장 가능성

을 중시하는 이유다. 재단 설립자인 정몽구 현대차그룹 명예회장이 강조해 온 장기 투자와 시스템 구축의 철학과도 맞닿아 있다.

H-온드림 운영 방식은 현대차그룹이 1990년대 말부터 수소연료전지차 개발을 위해 수소산업 생태계 구축에 장기 투자하고, 40년 넘게 한국 양궁을 지원해 세계 최강으로 키운 전략과 유사하다. 성과를 서두르기보다 생태계 전반의 성숙을 기다리는 방식이다.

올해로 13년째, 성과는 수치로도 확인된다. H-온드림을 통해 지금까지 창출된 일자리는 6569개. 선발 기업의 누적 매출액은 1조6753억원에 이른다. 이들 기업이 유치한 투자 규모는 3779억원이다.

올해 H-온드림 13기에는 20곳 선발에 812개 기업이 지원했다. 경쟁률이 40대1을 넘는다. 김정태 MYSC 대표는 “매년 선발하는 지원 사업에 800곳이 넘는 스타트업이 지원했다는 건 이미 생

태계를 이뤘다고 봐야 한다”며 “재단의 꾸준한 지원과 신뢰로 만들어낸 결실”이라고 했다.

실제로 펠로 기업 상당수는 한 번의 실패나 방향 전환을 거쳤다. 그 과정에서 재단은 방향을 지시하기보다는 베틸 수 있는 시간과 다음 선택지를 제공했다. 특히 ‘펠로 네트워크’를 통해 다양 한 비즈니스 분야에서 일하는 동료들을 만난다는 점도 강점이다. 윤석원 AI웍스 대표는 “H-온드림에서 가장 만족스러웠던 점 중 하나가 네트워킹 기회”라며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동료 펠로들과의 교류하면서 사업적 인사이트뿐 아니라 정서적 지지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무성 현대차 정몽구재단 이사장은 “임팩트 스타트업 생태계는 이제 양적 성장을 넘어 질적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앞으로도 단기 성과보다 구조와 기반을 남기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일요 더버터 기자



지난 17일 서울 광진구 파이팩토리에서 열린 ‘2025 H-온드림 스타트업 그라운드’ 현장.

[사진 현대차 정몽구 재단]

무에서 유를 창조한 ‘K-기업가정신’ 현대차 정몽구 재단이 이어간다



최재호
현대차 정몽구 재단
사무총장

전후(戰後) 대한민국이 산업화와 세계화를 동시에 이룬 ‘한강의 기적’의 중심에는 ‘K-기업가정신’이 있다. K-기업가정신은 단순한 기업 경영을 넘어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는 기업보국의 애국적 기업가정신이다. K-기업가는 1960년대부터 국가 주도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

에 발맞춰 조선·자동차·반도체 등 국가 핵심 산업의 토대를 구축한 시스템 빌더였다.

아산 정주영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 개척자형 기업가였다. 경부고속도로 건설로 국가 산업의 대동맥을 열었고, 한미 조선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를 가능케 한 K-조선업 생태계를 구축했다. 오늘날 세계 3위 수준으로 성장한 자동차 산업의 벤류체인을 구축했다. 재단 설립자인 정몽구 명예회장은 선대가 이룩한 산업시스템을 품질과 R&D 중심 경영으로 한 단계 끌어올리며 글로벌 스텐다드로 정착시켰다. 특히 구조적 혁신을 통해 ‘쇳물에서 자동차까지’라는 새로운 표준

을 제시했다. 그는 직원들에게 “불확실함이 클수록 자신을 믿고 역량을 발전시켜야 한다” “미래산업의 변화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틀을 넘어서는 창의적 시도와 끊임없는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설립자의 기업가정신을 이어받아 현대차 정몽구 재단은 청년 창업가와 임팩트 스타트업의 성장을 핵심 과제로 삼고 있다. 이들이 사회문제를 비즈니스로 해결하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가를 육성하는 게 재단의 지향점이다. 도전과 혁신의 기업가정신처럼 세상에 없던 가치를 만드는 청년 기업가들이 현실의 장벽에 가로막히지 않도록 교육, 멘토링, 투자 연계, 재정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원, 네트워킹, 글로벌 진출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과거 현대가 도전·창조·혁신으로 조선·자동차·건설 등 국가의 기간산업을 일으켰다면, 재단의 임팩트 스타트업 육성사업 ‘H-온드림 스타트업 그라운드’는 오늘날 청년 기업가들이 기후변화·양극화·교육격차 등 복잡한 사회문제를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임팩트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돋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는 단순 창업 지원을 넘어 임팩트 스타트업 생태계 구축하는 장기적 전략이다.

이들의 성공은 개개인의 성취를 넘어 우리 사회 전체의 혁신과 성장을 이끌고 있다. 2012년부터 매년 선발된 총

354명의 정몽구 펠로는 일자리 6569개를 창출했고, 누적 매출 1조6753억 원이라는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냈다. H-온드림은 지난날 국가의 산업 시스템을 창조했던 K-기업가정신의 위대한 도전과 창조의 정신을 이어받아 21세기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기업가형 혁신 기업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재단은 20세기 무에서 유를 창조한 K-기업가정신의 소중한 혁신이 21세기에도 청년들에게 이어지도록 지원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우리 청년 기업가들이 대한민국과 인류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